

봉영사 군사지역 해제요구

“아파트 신축허가는 해주고...” 편파행정 신도·주민상대 5천명 서명운동’ 펼쳐

전통사찰이 10여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편파적인 군(軍) 행정으로 신도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봉영사(주지 절안)는 85년 인

다. 그러나 군은 봉영사(1km)보다 부대에 근접한 곳에 아파트신축지(600m)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편파적인 행정이란 목소리가 높다.

봉영사는 최근 약수터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개축하려다 또다시 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봉영사와 천점산악수보존회는 1월말부터 신도와 주민들을 상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5천명 서명운동’을 펼치

고 있다. 현재까지 2천여명이 서명했으며 이달 말께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봉영사가 각종 불사에 제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4년 대응전 재건축 과정에서 10여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대응전과 명부전을 철거하고 대응전내에 명부전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군의 동의를 받아 불사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군의 개인으로 복구자 놓여지지는 등 그동안 수차례 군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찰측의 얘기다.

봉영사주지 절안스님은 “전통



봉영사를 찾은 신도와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사찰을 군이 임의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 고층아파트건설을 위해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주민들의 심신수련장인 사찰을 해제해 주지 않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이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이 봉영사 이외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단치연의 현행과약과 대치가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준근 기자 (gamja@buddhania.com)

‘개달음의 강좌-100일 법문’

정토회, 14일부터 6월21일까지 스님·목사·시민운동가 등 동참

한국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스님, 타종교지도자, 환경·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 인류가 직면한 공동체 파괴·자연환경 파괴 등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법화와 강연회가 열렸다.

정토회(지도법사 범룡)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현대인을 위한 개달음의 강좌-100일 법문’을 개최한다.

지구의 위기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속에서 찾고자 마련되는 이번 ‘100일 법문’에서 범룡스님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8시 ‘실천적 불교사상’인간 보타, 그 위대한 삶’ 반야심경-부처를 통한 절대 궁정의 세계 등을 주제로 70회에 걸쳐 법문한다.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는 ‘새 문명의 지평, 수행과

불사 조실) 등 대덕스님들의 특별법석이 마련된다. 또 김동암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승희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정수교무(원불교 강남교당), 오대순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 등 종교지도자와 환경·시민운동가들은 매주 토요일 3시 ‘상생의 시대, 새로운 문명의 열림’을 주제로 토요강연회를 개최한다. (02)587-8994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LA 동국 로얄대에서도 웨블 명상실 봉안 불상 목걸러

지난 1월 5일 동국대학교 미국 LA분교인 로얄대학(총장 한진수) 명상실에 봉안된 불상 목이 잘려 나가는 웨블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부사진 불상을 학교관리자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려져 불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회장 제니퍼 리씨에 따르면 “저녁 강의 시간에 불상이 파괴됐다는 제보를 받고 명상실에 가보니 불상의 목이 잘린 채 바닥에 평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다음날 불상이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은은 물론 무단 폐기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학교측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사건 접수 받은 뒤 경찰에 신고, 조사에 착수했다. 웨블이 학교측에 의뢰 일어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고 반박하고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nia.com)

북한문화재 지킴이운동 전개

불추위, 임원진 새로 구성...북에 비료 보내기 추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이하 불추위)는 2월23일 조계종 포교원회의실에서 1차 확대집행위원회 열고 금강산 순례단(6/2~6/5) 구성, ‘한민족공동체 더불어 살기운동’ 캠페인, 북한 불교문화재지킴이운동 등을 통해 불교계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적 대북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개해 오던 불교정책워크숍, 정기총회(나눔과 화합) 발간, 비료보내기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북한불교 및 불교문화재 현황조사, 남북한 불교지도자 상호방문 및 공동법회 개최 등 남북불교교류사업도 계속해 나간다. ‘북한불교문화재 1 사찰(단체) 1 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개로 통일이후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집행위원회에서는 총재를 비롯한 임원진 새로 구성했다. △총재·고산스님 △부총재·정려스님, 법등스님, 함종환 한나라당의원 △삼일집행위원장-

명진스님 △공동집행위원장·성조스님, 법안스님.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평불협 사단법인 추진

남북 서예교류전도 준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다, 이하 평불협)가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한다. 평불협은 2월24일 송현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등록을 위해 정관 및 김도현 전 문화부 차관을 상임대표로 한 5인 공동대표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평불협은 또 오는 4월 고운이 상산생명예회복 공익성인 신청, 5월 남북서예특별교류전, 10월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밖에 평불협은 금강산 신계사복원사업과 금강국수공장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이 1월14일 평불협 창립 7절을 맞아 보낸 축하메시지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도필선 기자

통도사 말사주지 인사 ‘물의’

배발절·해남사 사찰접수 놓고 갈등

통도사가 일부 말사에 대해 주지 해임과 위촉장을 발부, 사찰접수를 둘러싼 갈등이 일고 있다.

통도사 말사인 배발절(주지 등주) 신도 70여명은 2월 21일 통도사 대응전 앞에서 집시위를 벌이고 “10일자로 통주스님을 해임하고 사찰을 접수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임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배발절 신도회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주지해임과 사찰 접수 기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 해남사(주지 범해)도 2월 24일 2백여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통도사의 일방적 주지 해임에 대해 항의했다.

이같은 사태는 배발절과 해남사, 창녕 관룡사(주지 정안)와 울산 문수사(주지 항과) 등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의 상좌가 주지를 맡은 사찰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찰은 “월하스님의 뜻을 따르는 일부 정화개혁회의측 스

님들이 청하스님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찰을 접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도사 주지 월하스님은 “주지명의로 해임장이나 위촉장을 발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월하스님은 3월16일자로 “개혁발사를 계속하겠다”는 신명사를 발표했다. 임연태 기자 (ytilm@buddhania.com)

태고종 선암사 관련 재판 승소

태고종이 선암사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 조계종 세민스님이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명해금지등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0 민사부는 2월20일 판결문에서 “신청인(세민스님)에게는 이 사건 사찰(선암사)의 경내에 진입하거나 건물에 출입·지주(地主)할 법률상의 권리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명시했다.

이와관련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지성스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 종단이 승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종단간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양 종단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사회정화와 대중교화에 함께 매진하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세민스님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필선 기자

뉴스 & 뉴스

불교TV 살리기 범불교토론회

불교TV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PD)은 3일 오후2시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불교TV살리기 범불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채 해결 방안 모색 △경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대안 마련 △법종단적 후원 유도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교TV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nia.com)

북원중 흥련암 출입통제

북원외기에 놓인 양양 낙산사 흥련암의 해체·복원(본지 제210호)을 위해 2월22일부터 암자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양양군은 흥련암 안전에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신도와 관광객들의 법당 출입을 제한하고 이번 달부터 해체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 바다방향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내력을 완전히 손실, 안전성 최하급인 ‘E급’ 판정을 받았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밀각심인당 노인 무료세탁

진각복지회 지부 밀각심인당은 2월 22일 서울 성동구로부터 위탁받은 무료빨래세탁·배달사업장을 개장했다. 15평의 공간에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 등을 갖추고 문을 연 이 세탁방은 성동구 10개동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노인 6백여명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정기적으로 무료 세탁·배달한다. (02)292-3252 김재경 기자

나눔의집, 3·1절 특별공연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2월 27일 나눔의집 야외무대에서 3·1절 80주년 기념 특별공연 ‘역사의 아픔 어머니의 눈물’을 거행했다.

이날 공연은 1부 노래공연(이지상 씨 등 3인), 2부 들어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추모 추모 퍼포먼스(박찬수 목이불교박물관장, 목각 퍼포먼스와 임이조씨의 살품이춤 등), 3부 진혼곡(주요무형문화재82호 김금화씨)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제주 수정사지 확장발굴

최근 제주시는 도로법에 위반되는 건물이 밀집해 있는 구획정리 외부지역의 4백여㎡에 관해 6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수정사지 확장발굴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대박물관은 지난해 제주시의 의뢰로 수정사지 발굴 작업을 하고 연구대 인양상, 고려말 기와, 화폐인 인종동보, 석함 등 유물을 발굴했다.

제주시는 확장발굴 대상지에 이미 주택이 대거 들어서 있는 등 철거가 어려워 건물철거가 가능한 도로법 위반 지역에 대해 철거처리 후 그 지역에 대한 발굴만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지연 기자

사후장기기증 25명 서명 ‘생명나눔’ 학생선원법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현대불교신문은 2월22일 울산 학생선원(조실 우용)에서 제 2차 화장유언 및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5명이 사후 장기기증, 67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했다.(명단 참조 보도)

정초 참회기도법회 기간에 동참한 5백여명의 불자들에게 우용스님은 전날 법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생명보시”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후사신기증, 뇌사 장기기증 등을 서약한 인원은 “죽으면 소중한 내 몸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귀중한 보기가 되겠느냐”며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불제자로서 당



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후 장기기증과 뇌사 장기기증을 한 이명희보살(36세, 남구 신정동)은 “집안에 뇌사자가 생겨 장기기증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나 본인의 분명한 뜻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사는 오는 3월 28일 철원 심원사에서 제3차 캠페인을 연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nia.com)

(香妃) “향기” 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열()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질현(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질현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코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현(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환의 치료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붓말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빼어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노나 김상산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절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천연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질현)에 찌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되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기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 미선)